

낮에도 얼굴 식별 어려운 CCTV 수두룩

U-City 통합운영센터 반쪽 운영

상당수 50만 화소로 무용지물 나주시, 비용 부담에 교체 한계 범죄 예방 신속 대응 등 차질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주혁신도시에 조성한 'U-City 통합운영센터'가 원도심에 설치된 화질이 낮은 CCTV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첨단도시 조성 및 관내 초등학교 및 원도심에 목적별,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U-City 통합운영센터는 혁신도시 내 빛가람동 주민센터 2층 1230㎡ 규모에 상황실 2개소, 전산실, 통신실 등 15개실을 갖추고 있다.

U-City 통합운영센터에는 혁신도시 내 CCTV 210대와 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한 원도심 CCTV 535대(자체 339대, 초등학교 196대) 등 총 745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시는 U-City 통합운영센터 관제 모니터링을 위해 올해 초 전국경호협회와 연간 7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위탁운영협약을 맺었다.

통합운영센터에는 관제요원 24명과 경찰관 3명, 나주시 직원 2명 등 총 29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해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시설비와 대규모에 관제 인력을 투입하고도 관제 대상인 CCTV에 화질이 떨어져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관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나주혁신도시 내 빛가람동 주민센터 2층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주경찰서 및 나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관제하고 있다. 통합운영센터에는 원도심내 주요 도로의 교통망, 어린이안전, 문화재 등 CCTV 339대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96대가 연계돼 있다.

전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나주관내 초등학교 CCTV 196대에 대한 관제 비용으로 나주시 U-City 통합운영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196대 중 화질이 50만 화소 미만인 CCTV가 104대(53%)나 돼 제대로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나주 원도심에 CCTV도 화질이 40만 화소가 99대나 포함돼 있어 성능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50만 화소 미만 CCTV는 낮에도 얼굴 및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정도로 화질이 떨어진다.

또 야간에는 적외선 센서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관제센터에 등록된 50만 화소 미만 CCTV는 총 200여대 이른다.

U-City 통합운영센터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설치된 CCTV는 200만 화소로 zoom 기능을 이용하면 차량 내부는 물론 금천 자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100만 화소 미만은 혁신도시에 설치된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해야만 제대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나주시의 중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313대 중 190대(60%)가 100만 화소 미만이라는 점도 문제다.

나주시 교육청은 범죄 예방에 효율성과 사건·사고의 신속대응을 위해 성능개선이 시급하지만 대폭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만 화소급에 고화질의 CCTV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200만 화소로 CCTV 하나를 개선하는데 시설장비까지 포함하면 1300여만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15대 정도 성능을 개선할 예정인데 일시에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최경자·황현조팀 '관광두레 PD' 공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두레센터가 주관하는 '관광두레 PD' 공모에서 나주시의 최경자·황현조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관광두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총 100여개 지자체가 접수해 나주를 비롯한 8개 지자체에 11팀이 선정됐다.

최경자씨는 나주문평면 명하마을의 천연염색으로 하는 공방과 사회적기업인 명하햇길을 운영했으며, 천연염색을 주제로 축제도 개최한 천연염색 열정파다. 또 같은 팀 황현조씨는 나주에서 20여년간 살면서

사회적기업을 7년차 창업한 경험이 있다. 관광두레 PD란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과 발굴·육성하고 관광상품개발에 일조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나주시에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창업 및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두레 PD는 2013년부터 1지자체 1팀만 선정하는데 2016년 4기까지 전국에서 37개지역이 선정돼 활동중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관광두레 PD로 선정된 최경자(왼쪽)씨와 황현조(오른쪽)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역 이용객 74% 급증...KTX 개통 효과 긍정적

개통 1년 세미나...지역경제 활기

지난해 4월 1일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나주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역문화활동 기회 증대와 장거리 관광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1주년 세미나'에서 조상필 광주 전남연구원 실장은 'KTX 이용 특성 분석 및 변화 전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같은 자료를 내놨다.

조상필 실장은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KTX 경유역 5곳(광주송정·나주·목포·순천·여수엑스포역)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38%)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KTX 1단계 개통으로 통행이 빈번해진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47.7%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나주역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영향으로 수도권 이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나주역 이용객은 영암과 해남지역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나주역이 서남부권 교통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나주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월평균 이용객이 1130명에서 올해는 74%나 증가한 월 평균 1962명으로 집계됐다. 또 나주시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주차공간도

연일 만원이라서 승객들의 차량이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동 나주역 부역장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이나 월요일 오전에는 역이 분주할 정도로 활기가 넘는다"며 "덤달아 택시 이용객들도 늘어 지역경제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변경으로 210억원을 들여 선상역사로 개축해 대합실 및 역무시설 등을 배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동 승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공모중에 있으며, 2017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영산포 둔지에서 지난해 열린 유채꽃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꽃길을 걷고 있는 모습.

영산강 유채꽃축제 6~10일
영산포 흥어축제 15~17일
보리·문화축제 30일~5월1일

4월 나주는 축제의 도시

나주에서 꽃피는 봄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과 먹거리가 어우러진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2016 영산강 유채꽃 축제'가 영산강 둔지에서 개최돼 유채꽃 산책로를 걸으며 사진촬영 등 자연과 함께 힐링 체험이 가능하다. 또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12회 영

산포 흥어 축제'가 열려 나주의 대표 음식인 6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알싸한 흥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흥어축제에는 흥어 무짐 대항연, 흥어 감쪽 경매, 흥어 시식왕 선발대회 등 흥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제1회 영산강 보리·문화 축제는 복암리 고분전시관 개관

과 함께 최대 보리 재배지인 다시면 복암리 고분전시관 일원에서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다. 시는 특히 영산강 보리·문화 축제를 복암리 고분전시관, 천연염색박물관, 백호문학관 등 여러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통합 나주시체육회 출범...제도약 다짐

나주시체육회와 나주시생활체육회가 '나주시체육회'로 통합해 공식출범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체육회'가 지난 31일 나주시내체육관에서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 체육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나주시체육회는 지난달 18일 대의원 창립총

회에서 나주시체육회 규약(안)이 승인된 후 선출직 임원 모집공고를 거쳐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46명, 감사 2명을 포함 55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거쳐 체육회 상임부회장(유재석)과 부회장(한송호, 조창규, 이기준, 안민주), 사무국장

(서철운) 임명동의를 받아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강인규 나주시체육회장은 출범식에서 "2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체육단체가 장기적인 비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됐다"며 "나주시체육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바라며 체육인의 결속과 화합을 통해 나주시체육회가 그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코트에 영입중.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